

지역 소식통

김제시, 2024년 생활보장위원회 심의회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8일 '2024년 김제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시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보장비용 징수 제의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한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경과보고 및 가족관계 해체, △2024년 긴급지원대상자 지원 적정성 및 추가 연장 심사, △지활기금 운용 계획 변경 및 체납자 결산처분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결과 가족관계 해체와 부양의무자가 부양 거부·기피하고 있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33세대 등에 대해 가족관계 해체를 인정하고 지속적인 보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갑작스런 위기상황 발생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세대의 적정성과 자활기금에 대한 안건들을 의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제1회 완주군 쯤바 페스티벌' 성료

완주군 삼례생활문화센터, 비바라공연예술협동조합, 완주문화재단,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가 함께 '제1회 완주군 쯤바 페스티벌'을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19일 완주군에 따르면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최근 열린 행사는 완주 쯤바 동호회, 전북 쯤바 강사진, 마스터 클래스 제니퍼 김의 초청공연으로 진행돼 수준 높은 쯤바 무대를 보여줬다.

완주에서 처음 열린 쯤바 페스티벌은 전북 쯤바인 360여 명과 주민들의 자유로운 참여로 진행됐으며, 쯤바인들에게는 문화향유의 장을, 지역민에게는 쯤바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김미경 삼례생활문화센터장은 "지역문화예술이 다양한 커뮤니티와 만나 예술로 꽃을 피웠다"며 "쯤바 페스티벌도 많은 문화예술의 저변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의회 시정질문 잇따라

김주택·이정자·양운엽 의원, 시정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 및 대안 마련 촉구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가 19일 정성주 김제시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실시했으며 김주택·이정자·양운엽 의원이 나서 시정에 관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김주택 의원은 "김제시 관내에 소재한 기업들의 중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김제시의 대비 태세는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김제시가 중대재해와 관련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과 의무사항 이행에 필요한 세부규정 및 매뉴얼 마련 여부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이어 김제시의 지역 여건과 시책 적합성을 더 꼼꼼히 사전 검토해 공모사업에 도전할 것을 주문했으며 시의회에 보고대상인 공모사업을 보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 강력히 지적하면서 재발방지계획을 주문했다.

또한 예산과 관련된 사항,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할 경우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집행부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며 "의회 심의는 행정의 장애물이 아닌 행정의 파트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정자 의원은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편의 증대와 행정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김제시에 흠어져 있는 부서와 시청사를 어떻게 통합해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으며, 김제시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빈 건물을 공공건축물로 활용해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또한 "시민들의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 구도심에 통합보건타운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었으며,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시 선별진료소를 전통신장 김복에 설치해 시민들이 전염 가능성에 무방비로 방치된 점을 지적하며 추

후 예상치 못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집행부의 대응책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양운엽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의 "북김제변전소"가 용지면으로 임지 선정된 과정에서 시의 중재 노력이 있었는지 질의했으며 극심한 주민 반대 등으로 당초 백지에서 용지면으로 부지가 변경되는 등 6년이 지연되었는데 김제시에 변전소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의 설명을 요구했다.

이어 변전소 임지 확정 후 후속 사업들로 인한 추가적 갈등과 민원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향후 대응계획에 대해서도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고 기피시설 임지 갈등 해결 등 행정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변전소 설치에 국가공기업인 한전의 사업이며 북김제변전소는 금구, 백산, 김제변전소에 이어 김제시에 네 번째로 설치되는 변전소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완주군의회 이주갑 위원장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책 마련 촉구"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입안 거부 등 우수사례로 꼽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갑)가 지난 18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을 유쾌태 군수의 강평시간으로 마무리했다.

이주갑 위원장은 "지난 10일부터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준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의회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지적한 것에 대한 행정정반을 되돌아보고 완주군 발전을 위해 행정이 무엇인지 고민해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통합과 관련해 현재 완주군이 전주와 상생협력 사항을 중심으로 정책을 중심으로 진행해 주고, 통합과 관련된 말이 더 이상 거론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완주군의회와 소통의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다.

유의태 군수는 "원칙적으로 완주군 발전을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다"며, "전주시와 상생협력이 통합으로 확산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고, "현재 익산시와 김제시와도 상생협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완주군은 인근 시군과 다양한 방식의 상생협약으로 완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의회와 소통을 통해 행복한 완주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우수사례로 완주대크노밸리 제2임반산단단지 분양률 상승과 지방교부세 페널티 감소 등과

'2024년 농촌협약 공모사업 총사업비 362억 원을 확보해 북부 생활권인 고산 6개면의 침체된 농촌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상관면 지역주민과 도·군의회 의원들의 노력 등으로 군계획위원회로부터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입안 거부, 인구정책 TF팀 운영으로 출산률이 증가된 것 등을 우수사례로 꼽았다.

주요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은 △완주시 승격에 대한 적극적 노력 △혁신도시 시22 공공기관 이전 적극대응 △보은매립장 이전에 따른 구체적 계획 수립 및 근본적 대책 마련 △수소산업 출연금 등 지원 관리·감독 철저 △기준인건비 교부세 페널티 적용에 따른 대책 강구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노력 △정확한 세수추계로 세입관리 철저 △각종 위원회 전수조사 후 조례 정비 및 위원회 운영 철저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추진시 당초 목적의 본질을 흐리지 않고, 완주군에 실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요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적극 추진 △공공서비스 전방위 부실 운영에 따른 운영 활성화 방안 요청 등이며, 읍면 주요행사, 집단민원 발생 시 지역 의원들과 소통을 당부했다.

한편,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오는 19일 오전에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최종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청 근대5종팀 선수단, 금빛 행렬 이어가

전국대회서 김예나 2관왕 김우철·이화영 등 금 획득



완주군청 근대5종팀 선수단이 금빛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완주군청 근대5종팀은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전남 해남군에서 열린 2024 해남코리아 오픈 국제대회 및 제35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근대5종경기대회에서 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는 시도대항 대회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선수들이 모여 활약했다. 특히, 완주군청 소속 선수인 김예나 선수는 2관왕을 차지했다.

근대5종 개인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한데 이어 완주군청 소속 김우철 선수와 함께 출전한 혼성 계주에서도 1위를 달성했다.

또한, 이화영 선수는 전북연맹 소속

의 김보경, 김민정 선수와 함께 근대5종 단체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 토양 분석 능력 최고 수준

완주군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주관한 '토양검정 숙련도 평가'에서 전 항목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19일 완주군에 따르면 토양검정 숙련도 평가는 토양분석기관의 분석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토양분석 결과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매년 전국 9개

도농업기술원과 151개 농업기술센터가 참여하고 있다.

참여기관들은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제시한 2개의 미지시료를 분석해 토양의 pH, EC, 유기물 등 9개 항목에 대해 분석값을 제시한다. 실험방법은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완주군은 매년 4,000점 이상의 토양을 분석해 농업인에게 비료사용처방

서를 발급해 농업인이 토양관리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토양 상태가 급한 농가는 경작지의 토양 시료를 채취해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에 분석의뢰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는 분석을 통해 경작지에 대한 어떤 토양관리가 필요한지, 작물 유형에 맞는 적절한 비료추천량을 처방한다. 비용은 무료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지원사업 선정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지원 공모사업'에 '김제시지역사랑상품권 추가할인'이 선정돼 사업비 1천5백2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경제상황 및 사회환경의 변화로 발생하는 지역문제를 지역사랑상품권 활용을 확대해 해결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해 처음 시행됐으며, 시는 총 2건이 선정돼 △지역농특산물 판매직영점인 지평산물에서 김제시사랑카드 결제 시 5% 추가할인, △청년창업자 및 사회적경제기업에서 김제시사랑카드 결제 시 5% 추가할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추진 시 농특산물 생산자의 저거래가 더욱 활성화돼 김제의 우수한 농특산물 이용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경제와 사회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청년창업자 확대 및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지원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가맹점에서 김제시사랑카드 결제 시, 소비자는 기존 상품권 10% 할인, 추가할인 5%를 포함해 총 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맹점은 김제시사랑카드 매출 증가로 소득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시는 사업홍보 및 시스템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적용대상 가맹점은 추후 시 홈페이지와 고향사랑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사랑카드 추가할인은 해당 가맹점의 매출 증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경감시켜 지역경제가 활력을 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